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 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왼쪽)하는 동안 급식이 중단된 각급 학교에서는 빵·음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상국수습기자

교실에 등장한 빵·우유 그리고 도시락

학교비정규직 3-5일 대규모 파업... 파업 첫날 도내 73개교 급식중단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제주지역 73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제주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 제도 개선 및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대회의가 예고한 3일간의 파업 중 첫날인 3일 제주지역에서는 172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48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 1개를 포함해 모두 73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급식(214학

급)과 유치원방과후과정(166학급)은 교직원을 대체 투입하거나 학급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정상 운영됐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57개교(초 37, 중 17, 고 3)에서는 빵과 우유 또는 도시락 등의 급식 대용품을 제공했으며, 12개교(초 10, 중 1, 특수 1)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3개교(중 2, 고 1)는 기말고사 등과 연계해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며, 1개교는 수영교실 운영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날 급식이 중단된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빵과 음료를 공급했지만 김밥 등 도시락을 지참한 학생들도 상당수 목격됐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마련했다는 대책이 겨우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들어서 급히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파업 둘째날부터 파업 참여 인원이 감소해 4일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40개(초 26, 중 10, 고 3, 특수 1), 5일에는 29개(초 19, 중 6, 고 3, 특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준기자 sjpjo@ihalla.com

■ 여가원, '제주지역 성별 임금구조 분석' 월평균 男 273만원 vs 女 180만원

임금 차이 50대가 최고

제주지역 임금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은 남성의 65.7%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년 기준)를 토대로 제주지역 성별 임금구조를 분석했다.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273만 2000원인 반면 여성은 179만 5000원으로 93만 7000원이나 낮았다.

월평균 임금의 성별 임금차이를 보면 50대가 133만 2000원(남성 337만 6000원·여성 204만 4000원)으로 격차가 가장 심했다. 뒤이어 ▷50대 이상 89만 5000원 ▷40대 83만 1000원 ▷30대 64만 9000원 ▷20대 이하

51만 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셈이다.

종사자 지위별 성별 임금차이를 보면 임시직이 312만 6000원으로 가장 높고 일용직 124만 3000원, 상용직 61만 7000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신 연구위원은 연령, 교육연수, 근속연수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한 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의 임금은 생산성보다 차별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연구위원은 ▷여성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조치 ▷제주지역 여성 집중 직 무평가 모델 개발 및 임금 현실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관리적 진출 확대 ▷중고령자 취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강화 ▷임금관리 통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개선의무를 부과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제주관광 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 6월 한달 59건

제주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한달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5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 13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9건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중국인 리모(47)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내국인 김모(30)씨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달미를 잡혔다.

중국인 장모(34)씨는 제주시

연동 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110~120개 단위로 묶어 매장에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주모(47)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산 가공육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어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소방-한라병원-한라대 응급환자 이송구축 업무협약

제주소방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제주한라병원, 제주한라대학교와 '중증 응급환자 병원 전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증 응급환자는 2017년 5387명, 2018년 6789명, 2019년 5월말 현재 336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는 심정지나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호흡기질환 등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이송 및 전문적 병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제주소방본부는 한라병원과 한라대와 위원회를 구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 주차장 서비스권 전국 '꿀찌'

거주지 1km 이내 주차장 있는 제주 인구비율 고작 13%

전국 대도시는 50% 상회

거주지 1km 이내에서 주차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주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거주인구 비율은 거리별로 500m이내 4.04%, 750m이내 6.96%, 1km이내 13.42%, 1.5km이내 22.21% 등이다. 제주시는 2.09%, 서귀포시는 24.75%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

이 모자란 상태다.

이는 제주도가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은 거주지에서 1km 내에 주차장을 찾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제주시의 경우 100명당 2명이, 서귀포는 그나마 나은 24명이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지역은 제주보다는 나은 형편이다. 광주광역시(41.42%)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대도시의 경우 거주지 1km 내에서 주차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 비율은 모두 50%대를 상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에서 50%를 넘는 곳은 경기(60.10%) 강원(54.47%) 전북(55.72%) 경남(56.13%) 등이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인 세종시도 제주의 갑절수준인 27.91%이다.

제주의 주차장 접근성은 평균 7.06km이며, 최대 거리는 18.33km에 이른다. 제주시에서는 3.58km, 서귀포시에서는 3.98km를 가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북(9.69km) 전남(9.44km) 강원(8.64km) 충북(8.19km) 등 4곳이 제주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백용탁기자 haru@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은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